



한국건설, 옥암지구 '아델리움' 576세대 분양

한국종합건설은 오는 9일부터 목포 옥암지구 한국아델리움 576세대를 분양한다.

한국아델리움은 옥암지구의 노른자위로 불리우는 6블럭에 들어서며, 38평형(A·B), 43평형, 53평형 등 4개 평형으로 총 1천108세대 가운데 576세대가 분양된다.

옥암지구 6블럭은 부주산과 부흥산을 끼고 있고 남쪽으로는 영산호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청정 주거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 단지전체를 판상형과 타워형을 조합한 형태로 설계했으며, 전세대 1층을 필로티공법으로 시공하는 등 쾌적성과 개방감을 극대화시켰다. 분양문의는 061-282-0400.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주공, 운남주공 8단지 361가구 일반분양 접수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분부는 7~8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운남주공 8단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접수에 나선다.

운남주공 8단지는 총 361가구로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해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 20평형 130가구를 비롯 21평형(25가구), 25평형(206가구) 등 4개 평형의 8단지는 평당 분양가가 197만6천~256만5천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며, 당장 입주 가능성이 있다.

운남주공은 상무신도시, 광주시청, 광주종합터미널 등과 광로로 연결돼 있으며, 단지 주변에는 금구조·중, 영천중, 운남고 등의 학군이 인접해 있다.

분양 신청 자격은 광주시내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2순위는 6회 이상 납입자, 3순위는 1, 2 순위 이외 세대주다. 문의는 주공 광주전남본부 판매팀 062-520-3651.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韓銀 광주·전남본부, 지역경제 학술 세미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8일 오후 3시 한은 광주전남본부 강당에서 '지역축제의 산업과 전략'이란 주제로 지역경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한은 창립 56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선 장두영 호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성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개발팀장 등이 나와 열린 토론을 벌인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튀는 마케팅' 아파트 분양률 높인다

아산 제공·발코니 확장비 할인·아파트경품까지... 건설업체 '미분양 줄이기' 전략 안간힘

올들어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물량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각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이색 마케팅을 도입하는 등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나서고 있다.

5월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광주·전남의 신규 미분양 물량은 각각 996가구, 1천604가구 등 총 2천600세대에 달하고 있다. 이는 광주·전남에 신규분양 물량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 3월 2천99세대보다 24%(501세대) 증가한 수준이다.

이처럼 미분양이 증가한 것은 올들어 광주 북구와 목포 옥암지구 등을 중심으로 신규분양이 잇따른 데다 땅값 상승 등으로 인한 분양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또 '버블(거품) 논란' 등 수도권을 겨냥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오히려 지방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도 미분양 물량 적체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색 분양 마케팅 '붐물'=병각된 분양시장을 돌파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분양 마케팅이 가열되고 있다.

GS건설은 광주 서구 마북동 '상무자이' 분양을 앞두고 단지와 인접한 백석산의 2천여명 임야를 입주민에게 무상

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무자이' 입주민들은 분양 이후 시행사 소유의 임야를 법인 성격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유하게 된다.

금호건설은 최근 분양중인 목포 하당지구 '신하당지구 어울림' 모델하우스에서 '월드컵 4강기원 통큰 페스티벌'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 행사는 월드컵 기간내에 계약하면 순금 5만원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축구팀이 16강에 진출할 경우 순금 10만원을 추가로 주는

등 풍성한 상품이 마련돼 있다.

라운건설도 우리나라의 월드컵 8강 진출 이벤트로 여수시 문덕동에 분양 중인 33평형 아파트(분양가 1억3천만원)를 경품으로 내걸었다.

◇수요자 부담 낮추는 마케팅도=계약금을 대폭 낮추거나 입주후 일정기간을 무이자로 시행함으로써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마케팅도 이어지고 있다.

백산건설은 지난 4월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메가시티'를 분양하면서 계약금을 5%로 책정하고 모델하우스를 문화시설로 이용하는 등 각종 마케팅과 풍부한 편의시설 등을 바탕으로 80%에 이르는 높은 분양률을 보였다. 목포 옥암지구에서 576가구를 분양

아파트 분양 마케팅 전략

- 아산 무상 제공
- 월드컵기간 계약 순금 제공
- 8강진출때 아파트 경품
- 계약금 5%대 하향 조정
- 발코니 확장비 할인

중인 한라건설은 첫 날 계약서를 쓴 당첨자들에게 '발코니 확장비 30% 할인' 조건을 제시했다. 호반건설도 최근 광주 광산구 신창지구 '호반베르디움'을 분양하면서 발코니사시를 무상제공하는 등을 통해 분양률 높이기 위해 나섰다.

백산건설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계약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면자들의 계약 포기나 속출하는 등 청약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주)무등, 새 기업문화 창출 선도

콘덴서 및 배터리 피복용 열수축성 튜브 생산업체인 (주)무등(광산구 소촌동·회장 김국용)이 전 직원 해외연수와 출산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새로운 기업문화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국용 회장, 김우연 사장을 비롯한 무등가족 190여명은 2~5일 일본 관서지방인 오사카·교베·나라·교토 등을 돌아보는 대규모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94년 태국을 시작으로 96년 중국 북경, 2004년 일본 후쿠오카 등을 거쳐 이번이 네번째다.

4차 연수에서는 일본 교토에서 세계적인 택시문화를 일군 MK택시 유태식 부회장의 2시간 강연이 마련됐다. 유 부회장은 강연에서 MK신화를 설명한 뒤 "친절과 교육을 위해 절대 돈을 아끼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회장 등 임직원들은 숙소에서 토론회를 열고 유 부회장의 강연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제적 감각을 함양하고 회사발전을 위한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영어·일어 등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해외연수의 체계적인 발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김국용 회장은 "해외연수는 지난해 'MD(무등)2010 비전' 선포식을



김국용 회장 등 190여명의 직원 및 가족 연수단이 MK택시 유태식 회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전 직원 해외연수 94년 첫 시행후 4번째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시행... 사원 경쟁력 키워

통해 2010년까지 매출 500억원, 전체 매출 가운데 순이익률 7%를 달성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모두가 만들기'라면서 "모두가 주인이라는 신념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무등은 해외연수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중에서는 지난 1월부터 처음으로 전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둘째 아이·300만원, 셋째 이후 500만원)을 지급해오고 있

다. 지난 84년 설립된 무등과 98년 출범한 우리로광통신은 지난해 매출 180억원에 이어 올해 목표로 240억원을 정해놓고 있다.

광주지역 메세나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회장은 조수미 공연티켓을 관람 희망 직원들에게 무료 배포하는 등 지역문화 지원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주식투자자 거래 갈수록 위축

올들어 계속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약세로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주식시장 약세의 영향으로 지난 1월 5조340억원이던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 대금이 5월에는 2조4천811억원으로 50.7%인 2조5천 529억원이나 감소했다. 같은기간 전국 평균 거래대금 감소율은 40.4%에 달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코스피지수가 8.2%나 급락하면서 지역 투자자들의 거래대금이 지난 4월(2조9천902억원)에 비해 17%인 5천91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거래대금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전국 대비 비중도 지난 1월 2.1%에서 5월 1.8%로 0.3%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이같은 거래부진과 최근 급락 종목 속출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 회전을 마저 기다리고 있다.

월별 유가증권시장 회전율은 ▲1월 44.08%, ▲2월 31.02%, ▲3월 30.15%, ▲4월 28.86%, ▲5월 21.99%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또 코스닥시장 회전율도 ▲1월 108.12%, ▲2월 89.71%, ▲3월 91.90%, ▲4월 82.37%, ▲5월 63.12% 등으로 투자자들의 손바람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문통해 적성·체질 분석 시스템 개발

KT출자 벤처기업 '소프트메카'

지문분석을 통해 개개인의 적성과 직업, 체질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광주지역 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됐다.

KT출자 사내벤처인 소프트메카(주)는 가정 '지문을 이용한 생애비밀 분석 시스템' 개발을 최근 완료하고 무점포 대리점 모집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스캐너로 지문을 인식하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적성과 인성은 물론, 건강상태, 적합한 직업 및

전공학과, 체질분석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특히 20여년동안 지문연구에 전념해 온 동신대 정영권교수와 소프트메카가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에 성공했다.

소프트메카 김재욱부장은 "지문분석을 통해 적성을 파악하는 제품은 나와 있지만 단 한번의 검사로 생애비밀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소프트메카 홈페이지(www.in-fohunt.com)나 전화(016-609-5888)로 하면된다. /장필수기자 bungy@

KT출자 벤처기업 '소프트메카'가 '지문통해 적성·체질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

남성(性)의 명품 - 미스터 하이

남성(性)의 명품 - 미스터 하이

새벽이 살아나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미스터하이 특정한 이유

- 특수한 성분
- 사생활 보호되는 남성형 피임법
- 검증된 안전법(피임기구 사용권)

미스터하이 국내 사업부

080-505-0770

www.himehi.com